

# “100년 금자탑 발판 삼아 인재 양성 힘쓸 것”

학교법인 유은학원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13만 2000여 동문 배출 발자취 모은 100주년 기념관 개관  
박석남 총동문장학재단 이사장·양현종 등 14명 ‘유은인상’

학교법인 유은학원(이사장 최용선)이 26일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유은학원에 따르면 이날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학교 가촌당에서 기념행사와 기념관 개관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최용선 학교법인 이사장, 최영태 유은학원 총동문회장, 조영선 광주동성여자중학교장 겸 유은학원 창립 100주년 추진위원장, 이상선 퇴임 교직원 모임 교우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졸업 동문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기념식은 유은 100년의 역사를 정리한 기념 영상과 함께 교직원 장기근속자 표창, 축하 영상 시청 등으로 채워졌다. 유은학원 총동문회는 후배들이 4개 학교(광주동성고등학교·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광주동성중학교·광주동성여자중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100주년 기념 유은인상에는 박석남(동성고 10회) 재단법인 유은학원총동문회 장학재단 이사장, 박미희(광주여상 20회) 흥국생명 배구감독, 양현종(동성고 56회) 텍사스레인저스 투수 등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기념행사에 이어 역사 박물관인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관 개관식도 열렸다. 최용선 이사장은 “유은학원은 지난 100년 동안 자주성의 확립, 도의성의 함양, 창조력의 계발을 기치로 힘써 달려와 오늘에 이르렀다”며 “유은 선생의 교육적 사명과 헌신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인류 공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13만 20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학 양성에 구슬땀을 흘렸던 수많은 교직원의 노력과 유은 동문의 애교심, 그리고 후배 사람으로 오늘의 빛나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고 덧붙였다.



최용선 이사장

최영태 유은학원 총동문회 회장은 “우수한 광주·전남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안겨줬다. 특히 강한 정신력과 학구열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주경야독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기념관장인 조영선 동성여중 교장은 “교육과 나눔의 길 100년을 걸은 유은학원에 감사하다”며 “이제 다시 시작이다. 더욱 사랑하고 나누며 세계 속에 큰 힘이 되는 사람으로 힘차게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강조했다.

설립자 유은 최선진 선생은 ‘교육만이 어둠을 밝힐 빛이니 젊은이들이 의롭고, 슬기롭고, 올곧게 자라 자립하는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복돋우고자 한다’는 설립 목적과 함께 1921년 배움의 길을 열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진도 신기마을 어촌탐구생활



전남도와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가 마련한 ‘전남어촌탐구생활’에 참여한 귀어 희망 도시민들이 26일 진도 신기 어촌계에서 전북 가두리양식장 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 충남 등에서 온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간 신기마을에 머물면서 각종 체험, 양식장 체험 등 어민의 일상을 함께 해보고 전남 어촌으로의 귀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제공>

## 광주대·광주문화재단, 지역 문화예술교육 강화 ‘맞손’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왼쪽에서 여섯번째)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용년)이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6일 문화예술교육 상호협력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예술도시 광주 위상 강화를 목표로, 광주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교육 관련 각종 정보 시찰 활용, 문화예술교육 연구 및 발전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대 제공>



26일 오전 유은학원 창립 100주년 기념식 참가자들이 학원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학교법인 유은학원 제공>

###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속아도 꿈결(재) 40 지구촌 뉴스	45 목표가 생겼다(재)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 55 UHD 습터	00 대박부동산(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보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미디어세상 시청자와 통하는 TV
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한국의 인류유산(재) 55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20 푸리가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팡팡 다이노 45 반짝반짝 닌자			00 뉴스브리핑
3	00 마법소년 디디 2 15 출동! 유후구조대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롱롱족장(재)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본 좋은 날(재)	00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스페셜	00 마카엔로니 15 몬스터 탑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세한참사 트라우미를 이야기하다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50 2021 여자배구 네이션스리그 <대한민국·일본>	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20 목표가 생겼다	00 맛남의 광장
10	00 다크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10 류수영의 동물티비 스페셜 40 대화의 희열 3	30 광주MBC 다크플렉스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4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5 접수! 무비월드 스페셜
12	10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재)	00 스튜디오 K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사랑의 가족(재)	0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25 나이트라인 55 닥터 365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위베어 베어스 : 곰 브라더스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
07:00 로이와 함께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10 EBS 부모	19:05 포텐독
07:15 티시테시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10 명이	19:5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05 지식채널e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북대서양 탐험 -불의 땅 미지의 섬, 카나리아 제도>
08:00 똥덩덩 유치원	15:15 클래스 e	21:30 한국기행 <힐링할 지도 4부 초록길 따라 오세요>
08:3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50 파란만장
08:45 한글용사 아이야	15:50 가만히, 10분	22:45 사운드 스토리 너의 소리가 보여
09:00 시공	16:00 페파 피그	23:35 클래스 e
09:15 봉구야 말해줘2	16:15 한글용사 아이야(재)	23:55 EBS 비즈니스 리뷰
09:30 몰랑	16:30 똥덩덩 유치원(재)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덕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7일(음 4월 16일 乙亥)

<p>36년생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이 이상적이다. 48년생 반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0년생 확실하게 정도를 걷고 있다면 기쁜 일이 생긴다. 72년생 그대로 놔두면 아니 되니 속히 분할해야 한다. 84년생 조금만 더 진력한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96년생 현재 드러나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불완전하다.</p> <p>행운의 숫자 : 34, 60</p>	<p>42년생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자제히 살펴봐야 할 때이다. 54년생 사태는 불시에 발생하는 법이니 긴장을 늦추지 말자. 66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라. 78년생 신중 해야만 정확히 대처할 수 있다. 90년생 현명하게 살펴본다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02년생 실용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p> <p>행운의 숫자 : 44, 78</p>
<p>37년생 쌓아 놓은 공로로 인해 부가적 이익이 발생한다. 49년생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 할 때다. 61년생 완벽을 피하다가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운 꼴이 될 수도 있겠다. 73년생 성사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니 최선을 다하라. 85년생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유익하다. 97년생 안배를 잘 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p> <p>행운의 숫자 : 33, 71</p>	<p>43년생 착실하게 진행한다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55년생 더 악화 되지는 않을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67년생 끝까지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79년생 하던 일을 중단시킬만한 이변이 발생한다. 91년생 두고두고 가슴에 남을 만한 일을 겪으리라. 03년생 도모하기 힘든 일이니 포기하는 것이 맞다.</p> <p>행운의 숫자 : 08, 59</p>
<p>38년생 기회가 왔으니 앞뒤 재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50년생 자기 께에 자신이 넘어 갈 수도 있다. 62년생 개혁 정신을 발휘한다면 크게 활로를 열 것이다. 74년생 고정관념에 사로잡힌다면 일보도 나아가기 어렵다. 86년생 임시 미봉책은 두 번 일 시킬 것이니 제대로 하자. 98년생 반응이 중요하다.</p> <p>행운의 숫자 : 77, 57</p>	<p>32년생 확대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대하자. 44년생 상서로운 기운이 비추니 도처에 춘풍이로다. 56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적 대상에 집중하라. 68년생 현량을 유지하기 위한 복합적인 대상이 필요하다. 80년생 매끄럽지 못 하면 반드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92년생 우연을 가장한 방문자가 보인다.</p> <p>행운의 숫자 : 05, 86</p>
<p>39년생 방심 한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까 두렵다. 51년생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낫다. 63년생 구태에서 벗어나야만 새로운 면모를 도모할 수 있다. 75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맞대응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 87년생 성취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희화낙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99년생 흥정을 하거나 교섭을 벌이는 형국이다.</p> <p>행운의 숫자 : 22, 51</p>	<p>33년생 지난날에 쌓아 온 성과가 빛을 보는 날이다. 45년생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뜻밖의 바를 이루리라. 57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69년생 생향과 규모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1년생 초심대로라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93년생 규인이 명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 하게 된다.</p> <p>행운의 숫자 : 03, 76</p>
<p>40년생 반복적인 확인 작업이 일관성 있게 계속되어야만 놓치지 않는다. 52년생 실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64년생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국량이 된다. 76년생 고통의 끝은 지극히 달콤할 것이다. 88년생 타의에 좌우되지 말고 의지대로 추진하자. 00년생 확대 해석하거나 조기 판단하면 곤란하다.</p> <p>행운의 숫자 : 02, 98</p>	<p>34년생 끝나는 마당에 문제가 불을 수도 있다. 46년생 중심이 되는 곳을 주목하자. 58년생 탄력이 불어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 70년생 중차대한 일이 일어나리라. 82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만 난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94년생 예상치 못한 기별이 있을 수 있으니 각오하고 있어야 놀라지 않을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12, 54</p>
<p>41년생 미리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당황해서 앞서 당황하게 된다. 53년생 반드시 작용하고 있는 바가 있다. 65년생 의심하면 다시 보아야 할 때다. 77년생 종류는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니 구분을 잘 해야겠다. 89년생 미루지 말고 생각났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01년생 보다 큰 행복으로 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p> <p>행운의 숫자 : 24, 84</p>	<p>35년생 금전에 휘둘릴 수도 있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47년생 습관을 잘 들여놔야 당황하지 않는다. 59년생 치밀한 기획이 선행되어야 목적하는 바를 이루리라. 71년생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저절로 해결 된다. 83년생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 주는 것이 순조롭다. 95년생 넓고 깊은 물속에 큰 물고기가 사는 법이다.</p> <p>행운의 숫자 : 29, 82</p>